

# 독일어 파생조어의 시간성에 관한 연구\*

신 수 송  
(서울대학교)

**Shin, Soo-song. (2002). On the temporal properties of derived word formations in German. *Language Research* 38(3), 943-967.**

This paper treats the temporality of the nominalization (such as in the derived nominal such as *Besteigung, Überquerung, Untertunnelung*, etc., and in the infinitive nominal such as *Besteigen, Überqueren, Untertunneln*, etc. The base verbs of these nominals are prefix verbs which denote the changes in the state of affairs. Intuitively they are interval based, but syntactically they do not allow the modification with the durative predicates or durative temporal adverbials. Thus they cannot cooccur with the predicates *dauern, in Anspruch nehmen* or the temporal adverbials *den ganzen Tag, ein Monat lang*, etc. On the contrary, the infinitive nominals such as *Besteigen, Überqueren, Untertunneln* can be modified with durative adverbials/adjectives or cooccur with the durative predicates whereas it is not always the case for the derived nominals. It is found that the infinitive nominalizations visualize the time interval which is not accessible in the case of their base verbs. The process of the events denoted by the infinitive nominals are described with the function which has the subintervals as domain and the changes of the properties of the theme arguments as range. The derived -ung-nominals, however, always denote the result of the changes of the state of affairs. If they denote the result of the changes repeatedly within a specific interval composed of subintervals, then they can be modified with temporal adverbials or cooccur with durative predicates.

**Key words:** temporality of nominalization, derived nominal, infinitive nominal, durative predicate, the process of events, visualize the time interval

## 1. 파생동사의 시간성 기술

### 1.1. 전철 자동사의 시간성 문제

독일어의 전철동사들의 다수가 사건동사라는 연구가 Essau(1973), Ehrich(1977,

---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후원으로 완성되었다.

1990), 신수송(2000), Shin(2001) 등에서 나오면서 이들이 지칭하는 사태변화가 시간 축 상에서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음은 Klein (1999)의 어휘기술 방법에 따라 사건동사인 verkorken의 어휘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1) verkorken

- a. 음성음운론적인 정보 [...]
- b. 범주적인 정보 [...]
- c. 어휘내용:

(i)  $-K \wedge K$

$-K = x \text{ ist zu } t_i \text{ kein Kork}$

$K = x \text{ ist zu } t_j \text{ Kork}$

(ii)  $t_i > t_j$

(iii) K는 -K에 대하여 인과관계에 있다.

이러한 verkorken의 어휘내용은 (i)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상 논항인 x가 시점  $t_i$ 에서 kein Kork의 초기상태에 있고 시점  $t_j$ 에서 결과상태의 Kork가 되는, 두 가지의 모순된 상태를 동시에 갖는다. 이때 시점  $t_i$ 는 시점  $t_j$ 에 앞서며 (조건 ii), 만일  $t_i$ 에서 x가 kein Kork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x가  $t_j$ 에서 Kork의 상태에 있을 수 없으므로 이들 두 상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문제는 이 두 상태가 서로 모순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모순되는 이유는 우리의 직관과는 달리 초기상태에서 결과상태로의 변화를 위한 어떠한 시간구간도 통사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 예문들에서 그 타당성을 찾게 된다.

(2) Das Gewebe verkorkte \*10 Jahre lang/\*in 10 Jahren.

(2)에서 지속성 시간부사인 10 Jahre lang과 시간연장 부사인 in 10 Jahren이 사건동사 verkorken과 사용될 경우 비문법적이 됨으로, 따라서 다음과 같이 초기상태와 결과상태가 시간적으로 빈틈없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3) {-----+-----}

초기상태

결과상태

-K

K

{, }은 verkorken의 어휘내용이 가리키는 상황

-K: x ist kein K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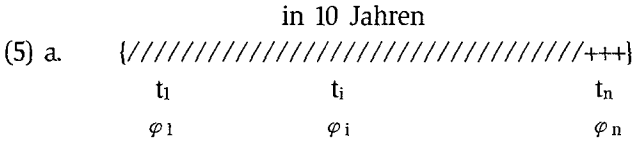
K: x ist Kork

x = das Gewebe

그러나 우리는 전철동사가 지칭하는 사건이 시간구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통사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hin, 2001)

- (4) a. Es dauerte 10 Jahren, bis das Gewebe verkorkte.
- b. Es nahm 10 Jahre in Anspruch, bis das Gewebe verkorkte.

(4a)에서는 논항인 *das Gewebe*(식물조직)이 ‘콜크’가 될 때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b)에서도 *Es nahm 10 Jahre in Anspruch*은 역시 ‘식물조직이 콜크가 될 때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은 verkorken의 어휘내용이 가리키는 상황을 나타낸다.  
 ////////// 변화를 나타내고 통사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초기상태:  $\varphi_1 = x$  ist zu  $t_1$  kein Kork  
 변화:  $\varphi_i = x$  ist zu  $t_i$  kein Kork  
 결과상태:  $\varphi_n = x$  ist zu  $t_n$  Kork  
 $x =$  das Gewebe

a'. verkork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로 표시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verkorken}' : & \quad f \text{ verkorken } (t_1) = - \text{Kork}(x) \\
 & \quad + \quad ; \\
 & \quad + f \text{ verkorken } (t_i) = - \text{Kork}(x) \\
 & \quad + \quad ; \\
 & \quad + f \text{ verkorken } (t_n) = \text{Kork}(x) \\
 \hline
 & \quad \sum_{j=1}^n f \text{ verkorken } (t_j)
 \end{aligned}$$

verkorken'은 전철동사 verkork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를 함수관계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초기상태는, 시점  $t_1$ 에서  $x$ 가 콜크가 아니다가 (-Kork(x)) 그후,  $t_i, t_{n-1}$ 까지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t_n$ 에 이르러서야 비로써 결과상태 Kork(x)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로 표시된 부분은 통사적인 수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함수 값은 초기상태의 값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verkorken은 지



- (6) b. (Es nahm 10 Jahre in Anspruch/dauerte 10 Jahre),  
bis das Gewebe verkorkt ist.

in 10 Jahren

{//////////++++}++++[+/+]++++++

변화

결과상태

발화시간

{ } : verkorken의 어휘내용이 지칭하는 상황시간의 경계

[ ] : 주제시간의 경계

//////// : 변화과정

/ : 발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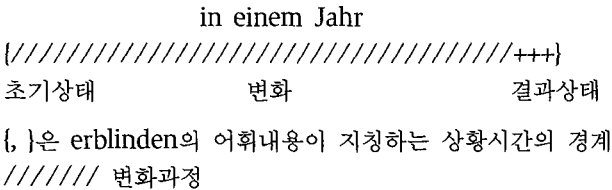
(6b)에서도 verkork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그 식물조직이 콜크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리는 시간구간으로서 (6a)에서와 같이 시간 연장부사 in 10 Jahren에 의해 그 한계를 { }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여기서도 초기상태를 포함하며, 통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부분과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주제시간은 이러한 변화가 끝이 난 이후시간에 발화시간을 포함하는 현재시간으로 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주제시간은 변화과정의 시간경계 밖에서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은 현재완료 시제가 현재시제와 완료상 Perfekt의 복합관계를 갖는다는 Klein의 이론을 따른 것이다.

이러한 사건동사 verkorken에 해당되는 현상은 사건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전철동사들에게도 적용되어 전철동사를 위한 하나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가정될 수 있다.

- (7) a. \*Der Mann erblindete ein Jahr lang.  
b. \*Der Mann erblindete in einem Jahr.  
c. Es nahm ein Jahr in Anspruch/dauerte ein Jahr,  
bis der Mann erblindete.
- (8) a. \*Die Wunde vernarbte einen Monat lang.  
b. \*Die Wunde vernarbte in einem Monat.  
c. Es nahm einen Monat in Anspruch/dauerte einen Monat,  
bis die Wunde vernarbte.
- (9) a. \*Das linke Bein erlahmte eine Woche lang.  
b. \*Das linke Bein erlahmte in einer Woche.  
c. Es nahm eine Woche in Anspruch/dauerte eine Woche  
bis das linke Bein erlahmte.

(7)-(9)의 a-문장들은 사건동사들로서 시간지속을 나타내는 부사(구) ein Jahr lang, einen Monat lang, eine Woche lang 등과 함께 사용되면 비문법적이 된다. 또한 이들 사건동사들은 시간연장 부사(구) in einem Jahr, in einem Monat, in einer Woche와 사용될 경우, 이러한 시간이 경과하고 난 후 사건동사들이 지칭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문법적이다. 그러나 이 시간연장 부사가 지칭하는 시간경과는 사태변화의 시간적인 경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지칭하는 시간이 경과하고 난 후에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7)-(9)의 b-문장들은 모두 비문법적이다. 사건동사들이 지칭하는 시간적인 경과는 그러나 앞서 verkorken의 경우에서 본바와 같이 es nahm ein Jahr/einen Monat/eine Woche in Anspruch, bis ... 혹은 es dauerte ein Jahr/einen Monat/eine Woche, bis ... 등과 같은 통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7)에서 ‘그 남자가 눈이 일년 동안 멀게 되었다’는 비문법적이지만 ‘눈이 머는데 한 달이 걸렸다’는 문법적이다. (8)에서도 ‘상처가 한달 동안 아물게 되었다’는 비문법적이지만 ‘상처가 아무는데 한 달이 걸렸다’는 문법적이다. (9)의 경우도 ‘왼쪽 발이 일주일 동안 마비되고 있었다’는 비문법적이지만 ‘왼쪽 다리가 마비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는 문법적이다. (7b)의 erblinden을 예로 들어 사태변화의 경과와 그 결과상태를 다음과 같은 도표와 함수관계로 나타내보자.

(10) a. (Es nahm ein Jahr in Anspruch/dauerte ein Jahr),  
bis der Mann erblindete.



b. erblind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로 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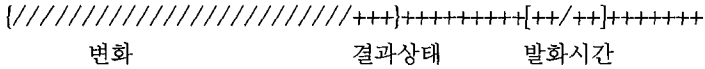
$$\begin{aligned}
 \text{erblinden}' : & \quad f \text{ erblinden } (t_1) = - \text{Kork}(x) \\
 & \quad + \quad : \\
 & \quad + f \text{ erblinden } (t_2) = - \text{Kork}(x) \\
 & \quad + \quad : \\
 & \quad + f \text{ erblinden } (t_n) = - \text{Kork}(x) \\
 \hline
 & \quad \sum_{i=1}^n f \text{ erblinden } (t_i)
 \end{aligned}$$

이상의 도표에서 erblind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가 ein Jahr lang과 같은 지속성 시간부사에 의해 통사적으로 수식이 불가능한 부분을 //////////로 표시하였다. 그러



(12) a. (Es nahm ein Jahr in Anspruch/dauerte ein Jahr),  
bis der Mann erblindet ist.

b. in einem Jahr



{ } : erblinden의 어휘내용이 지칭하는 상황시간의 경계

[ ] : 주제시간의 경계

///////// : 변화과정

/ : 발화시간

(12b)에서도 erblind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역시 ‘그 남자가 눈이 멀게’ 되기까지 1년이 걸리는 시간구간으로서 시간 연장부사 in einem Jahr에 의해 그 한계를 { } 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여기에서도 초기상태를 포함하며, 통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부분과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주제시간은 발화시간을 포함하는 현재시간으로 이러한 변화가 끝이 난 이후시간에 해당되며, 따라서 이 주제시간은 변화과정의 시간경계 밖에서 위치하게 된다. 결과상태의 상황 이후 시간은 결과상태인 x ist blind가 특정한 변화가 없는 한 잠정적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완료문이 완료상 Perfekt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Klein의 이론을 따른 것이다.

### 1.2. 전철 타동사의 시간성 문제

이 절에서는 전철타동사가 타동사로서 사태변화를 나타내는 사건동사일 경우 그 어휘내용을 기술하려고 한다. 다음은 besteigen의 어휘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13) besteigen

a. 음성음운론적인 정보 [...]

b. 범주적인 정보 [...]

c. 어휘내용:

(i) -B  $\wedge$  B

-B = x ist zu t<sub>i</sub> nicht bestiegen

B = x ist zu t<sub>j</sub> bestiegen

(ii) t<sub>i</sub> > t<sub>j</sub>

(iii) B는 -B에 대하여 인과관계에 있다.

이러한 besteigen의 어휘내용은 (i)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즉 대상인 x가 시점 t<sub>i</sub>에서 nicht-bestiegen의 초기상태에 있고 시점 t<sub>j</sub>에서 bestiegen의 결과상태에 있



는 모순되는 두 가지 상태를 갖는다. 이때 시점  $t_1$ 는 시점  $t_2$ 에 앞서며 (조건 ii), 만일  $t_1$ 에서  $x$ 가 nicht-bestiegen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x$ 가  $t_2$ 에서 bestiegen의 상태에 있을 수 없으므로 이들 두 상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문제는 이 두 상태도 앞서 자동사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모순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모순되는 이유는 두 상태사이에 변화를 위한 어떠한 시간구간도 통사적인 기술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들이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시킨다.

(14) Hans bestieg den Berg \*drei Stunden lang/\*den ganzen Tag.

(14)에서 시간부사구 drei Stunden lang, den ganzen Tag 등은 상태변화가 지속되는 시간구간을 지칭하는데 이들이 사건동사 besteigen과 사용될 경우 비문법적이 된다. 여기서도 우리는 전철동사가 자동사로서 사건을 지칭하는 경우와 같이 초기상태와 결과상태가 서로 붙어 있고 이들 사이의 시간적인 빈틈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15) {-----+++++++}

초기상태                  결과상태  
-B                                  B

{, }은 besteigen의 어휘내용이 가리키는 상황을  
-B :  $x$  ist zu  $t_1$  nicht bestiegen  
B :  $x$  ist zu  $t_2$  Kork bestiegen  
 $x$  = der Berg

그러나 우리는 전철동사가 지칭하는 사건이 시간구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통사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6) a. Es dauerte drei Stunden, bis Hans den Berg bestiegen hat/bestieg.
- b. Es nahm den ganzen Tag in Anspruch, bis Hans den Berg bestiegen hat/bestieg.

(16a)에서 es dauerte den ganzen Tag은 ‘한스가 그 산을 오르기까지 하루종일 시간이 걸린 것을 의미한다. (16b)에서도 Es nahm den ganzen Tag in Anspruch은 ‘한스가 그 산을 오르는데’ 시간의 소요가 den ganzen Tag임을 말한다. 이처럼 besteigen이 직접 사태지속을 나타내는 dauern과 결합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가 초기상태에서 결과상태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시간소요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예문 (16a,b)를 통

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됨으로 이를 다음과 같은 도표와 함수관계를 통해 예시하여 보자.

(17) a.

in drei Stunden

{//////////++++}

초기상태                      변화                      결과상태

{, }은 besteigen의 어휘내용이 지칭하는 상황시간의 경계  
////////// 변화과정

b.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로 표시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besteigen}' : & f \text{ besteigen} (t_1) = - \text{bestiegen} (x) \\
 & + : \\
 & + f \text{ besteigen} (t_j) = - \text{bestiegen} (x) \\
 & + : \\
 & + f \text{ besteigen} (t_n) = \text{bestiegen} (x) \\
 \hline
 & \sum_{j=1}^n f \text{ besteigen} (t_j)
 \end{aligned}$$

도표 (17a)에서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가 drei Stunden lang과 같은 지속성 시간부사에 의해 통사적으로 수식이 불가능한 부분을 //////////로 표시되었다. 이러한 사태변화의 시간구간, 즉 ‘한스가 그 산의 정상에 오르는’데에 걸리게 되는 3시간이란 시간구간은 시간 연장부사 in drei Stunden에 의해 그 한계를 {, }로 표시하였고,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결과를 +++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변화는 초기상태를 포함하며, 통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부분과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17b)에서 besteigen'의 의미는 전철동사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를 함수관계로 나타낸 것이다. 이때 함수관계는 초기상태를 시점 t<sub>1</sub>에서 산(x)을 타기 시작하는 상태 -bestiegen(x)으로, 그후 t<sub>i</sub>, t<sub>n-1</sub>까지 산을 타는 한스의 행위가 계속되다가 시점 t<sub>n</sub>에 이르러서야 한스가 완전히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결과상태를 bestiegen(x)으로 나타내고 있다. //////////로 표시된 부분은 통사적인 수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함수 값은 초기상태의 값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가 초기상태에서 결과상태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시간경과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예문 (16a,b)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시할 수 있었다. 이제 과거시제문과 현재완료문을 가지고 결과상태를 시간축 상에서 기술하여 보자. 먼저 과거시제문의 결과상태를 기술하여보자.

(18) a. (Es dauerte drei Stunden/nahm drei Stunden in Anspruch,) bis Hans den Berg bestieg.

b. in drei Stunden

{//////////[////////++]+}+++++//////////++++  
변화 주제시간 결과상태 발화시간

{ } : besteigen의 어휘내용이 지칭하는 상황시간의 경계

[ ] : 주제시간의 경계

////////// 변화과정

/ : 발화시간

이 도표에서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의 시간적인 경계, 다시 말해 ‘한스가 산의 정상에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구간의 경계는 시간 연장부사 in drei Stunden에 의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으로 { }로 표시하였다. 이제 변화의 결과가 ++++로 표시될 때 우리는 [ ]으로 표시한 주제시간의 경계 안에서 변화의 과정이 끝나고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변화는 초기상태를 포함하며, 통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부분과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시제가 완결상 Perfektiv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Klein의 이론을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완료시제 문에서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와 결과상태가 어떻게 기술되는 가를 다음 예문을 가지고 설명하여 보자.

(19) a. (Es dauerte drei Stunden/nahm drei Stunden in Anspruch,) bis Hans den Berg bestiegen hat.

b. in drei Stunden

{//////////++++}++++{++/++}+++++  
변화 결과상태 발화시간

{ } : besteigen의 어휘내용이 지칭하는 상황시간의 경계

[ ] : 주제시간의 경계

////////// : 변화과정

/ : 발화시간

(19b)에서도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18b)와 동일하게 ‘한스가 산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3시간이 걸리는 시간구간으로서 시간 연장부사 in drei Stunden에 의해 그 한계를 { }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여기서도 초기상태를 포함하며, 통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부분과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주제시간은 발화시간을 포함하는 현재시간으로 이러한 변화가 끝난 이후시간에 해당되며, 따라서 이 주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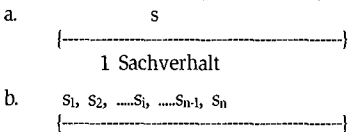
간은 변화과정의 시간경계 밖에서 위치하게 된다.2) 이러한 사건동사 *besteigen*에 해당되는 현상은 사건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전철동사들에게도 적용된다.

- (20) a.\*Hans überquerte den Kanal vier Stunden lang.  
 b. Hans überquerte den Kanal in vier Stunden  
 c. Es nahm vier Stunden in Anspruch, bis Hans den Kanal ueberquerte.  
 d. Es dauerte vier Stunden, bis Hans den Kanal überquerte.
- (21) a.\*Man untertunnelte den Kanal ein Jahr lang.  
 b. Man untertunnelte den Kanal in einem Jahr.  
 c. Es nahm das ganze Jahr in Anspruch, bis man den Kanal untertunnelte.  
 d. Es dauerte das ganze Jahr, bis man den Kanal untertunnelte

(20)-(21)에 주어진 *überqueren*, *untertunneln*은 *besteigen*과 마찬가지로 사건동사에 속하고 모두 두 개의 모순된 상태, 즉 초기상태인 -*überquert(x)*와 결과상태인 *überquert(x)* 그리고 초기상태인 -*untertunnelt(x)*와 결과상태인 *untertunnelt(x)*를 어휘내용이 지칭하는 상황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상태 사이에 시간적인 틈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태변화를 위한 시간구간의 통사적인 기술이 불가능하다.3) 따라서 *überqueren*, *unter-tunneln*, *besteigen* 등이 지칭하는, 사태의 이질적인 전 변화과정을 수식하는 시간부사 *vier Stunden lang*, *ein Jahr lang*, *den ganzen Tag*이 사용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사건동사들이 일정한 시간구간을 통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시간구간 연장부사인 *in vier Stunden*, *in einem Jahr*, *in einem Tag vier Stunden* 등이나 일정한 시간구간을 요구하는 술어 *in Anspruch nehmen*, *es dauerte ... bis ...* 따위

2) 그러나 이 현재완료문이 과거시제의 의미로 사용된다면 주제시간이 발화시간이전에 주어지는 것으로 이 경우는 (17a)의 기술과 같은 것이다.

3) *dauern*과 같은 동사나 *den ganzen Tag*, *eine Woche lang*과 같은 시간부사는 동작동사나 상태동사와 양립할 수 있다. 동작동사 혹은 상태동사들은 이들 시간부사(구)들이 지칭하는 시간구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의 사태지속을 나타내거나 다수의 동질적인 사태들을 나타낸다.



(a)의 경우는 변화가 없는 하나의 사태를 지칭하는 어휘내용, 예를 들어 *liegen*, *stehen*, *decken* 등과 같은 상태동사에 해당한다. (b)의 경우는 다수의 사태들  $s_1, s_2, \dots, s_i, \dots, s_{n-1}, s_n$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주어지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고 동질 *homogen*의 성질을 가지며 *tanzen*, *schlafen*, *lachen* 등과 같은 동작동사에 해당한다.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명시할 수 있다. 즉 이들 동사들은 통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태변화의 시간구간을 어휘내용 속에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 2. 전철동사의 명사화에 있어서 시간성 문제

### 2.1. 부정사 명사화 Infinitiv-Nominalisierung의 시간성

부정사의 명사화는 독일어의 경우에 있어서 거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활성화적이다. 다만 이들이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는가 하는 것이 이들의 문법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Essau, 1973, 161ff 참조)

- (22) a. \*Das **Versuchen** ist mir mißlungen.  
 b. \*Sein **Empfangen** des Geschenkes beleidigte die anderen.
- (23) a. Es handelt sich um das **Versuchen** und nicht um das Gelingen.  
 b. Das **Empfangen** von Geschenken beleidigt ihn nic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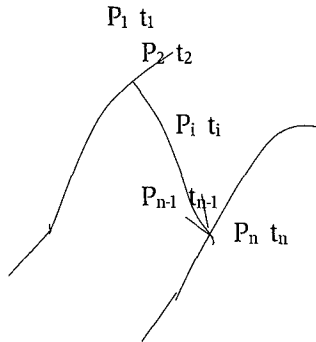
부정사 명사화인 Versuchen, Empfangen이 (22)의 문맥에서 비문법적이고 (23)의 문맥에서 문법적인 이유는 이들과 결합하는 술어와 관계된다고 본다. 즉 술어 ist mir mißlungen, beleidigte die anderen 등은 주어 사태의 결과를 나타내야 하고 결코 진행이나 지속을 나타내서는 안 되는 제약을 준다. 역으로 우리는 (22a,b)가 비문법적이기 때문에 Versuchen, Empfangen 등과 같은 부정사 명사화는 사태의 진행이나 지속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부정사의 명사화가 사태의 진행/지속을 나타낸다는 것은 앞서 파생동사 überqueren, untertunneln, besteigen의 명사화에 있어서 시간성에 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4) a.\*Hans überquerte den Kanal vier Stunden.  
 b. Das Überqueren des Kanals dauert vier Stunden.  
 c. Das Überqueren des Kanals nahm Hans vier Stunden in Anspruch.  
 d.\*Das Überqueren des Kanals ist mir nicht gelungen.
- (25) a.\*Man untertunnelte den Kanal das ganze Jahr.  
 b. Das Untertunneln des Kanals dauerte das ganze Jahr.  
 c. Das Untertunneln des Kanals verlangte den Einsatz modernster Bautechnik.  
 d. \*Das Untertunneln des Kanals war ein Verlustgeschäft.

- (26) a. \*Hans hat den Berg zwei Stunden lang bestiegen.
- b. Das Besteigen des Bergs dauerte zwei Stunden.
- c. Das Besteigen des Bergs nahm zwei Stunden in Anspruch.
- d. \*Das Besteigen des Bergs gab mir große Freude.

우리는 앞 절에서 전철동사들이 사건을 나타낼 때 이들이 지속성 시간부사나 시간 연장부사에 의해 수식될 경우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을 보았다. 이제 (20), (21)의 사건동사 überqueren을 명사화한 Überqueren의 시간적인 속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22b)에서 부정사의 명사화 Durchqueren des Kanals는 지속성을 나타내는 술어 dauert vier Stunden과 결합하여 문법적인 문장을 이룬다. 즉 동사 überqueren과 명사화 Überqueren은 시간적인 성질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überqueren이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상태인 - überquert(x), überquert(x) 중에서 다만 결과상태 überquert(x)만을 주제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 초기상태인 - überquert(x)을 접근하는 것이 통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술어 전체의 시간구간을 수식하기 위해 시간부사 vier Stunden lang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überqueren의 명사화 Überqueren이 시간적인 지속을 나타내는 술어 dauerte vier Stunden과 결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Überqueren의 전체의 시간구간이 통사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다음은 이 관계를 그림을 통해 설명하여 보자.

- (27) a. Überqueren des Kanals dauerte vier Stunden.



위 그림에서 ---->표시는 한스가 운하를 건너가는 루트를 표시한 것이다. Kanal의 변향인 x의 위치 P는 한스가 운하를 건너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다. 즉 운하를 건너기 시작하는 초기상태의 시점을  $t_1$ 이라고 하고 이때의 운하의 위치를  $P_1$ 이라고 한다면 시간의 흐름  $t_1, t_2, \dots, t_i, \dots, t_{n-1}$ 에 대응해서 운하의 위치가  $P_1, P_2, \dots, P_i, \dots, P_{n-1}$ 로 바뀌게 되며, 시점  $t_n$ , 위치  $P_n$ 에 이르렀을 때 운하를 건너게 되는 결과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전철동사 überqueren이 사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이 변화과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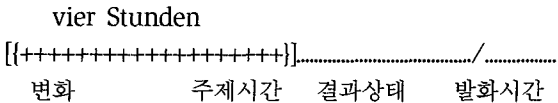
지속성 시간부사를 가지고 통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데, 그러나 부정사를 명사화 할 경우 사태의 변화가 가시화 되어 지속을 나타내는 시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Überquer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27) \text{ b. Überqueren}' : & \quad f \text{ Überqueren } (t_1) = \text{überquert } (P_1(x)) \\
 & \quad + \quad : \\
 & \quad + f \text{ Überqueren } (t_2) = \text{überquert } (P_2(x)) \\
 & \quad + \quad : \\
 & \quad + f \text{ Überqueren } (t_n) = \text{überquert } (P_n(x)) \\
 & \quad \hline
 & \quad \sum_{j=1}^n f \text{ Überqueren } (t_j)
 \end{aligned}$$

부정사 명사화인 Überqueren'의 의미는 Überqueren이 지칭하는 사태의 변화를 말하며, 이는 시간축 상의 시점  $t_1$ 를 논항으로 취하고  $x$ (운하)의 위치  $P_1$ 를 값으로 하는 함수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초기상태는 시점  $t_1$ 에서 한스가 운하를 건너기 시작하면서 그후,  $t_1, t_{n-1}$ 까지 운하를 건너는 행위가 계속되다가 시점  $t_n$ 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운하의 목표지점  $P_n$ 에 도달하여 결과상태 überquert ( $P_n(x)$ )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부정사 명사화가 지칭하는 사태변화가 시간 축 상에서 주제시간과 갖게 되는 관계를 검토하여 보자.

(28) a. Das Überqueren des Kanals dauerte Hans vier Stunden/nahm Hans vier Stunden in Anspr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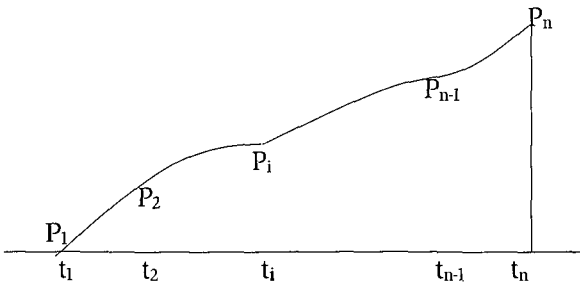
- {, } : Überqueren의 어휘내용이 지칭하는 상황시간의 경계
- [, ] : 주제시간의 경계
- +++++ : 변화과정
- / : 발화시간

이 도표에서 부정사 명사화인 Überquer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의 시간적인 경계는 vier Stunden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태변화는 발화시간을 기준으로 과거의 주제시간과 일치한다. 즉 ‘한스가 운하를 건너기까지’ 걸리는 시간구간의 경계는 지속성 시간부사 vier Stunden에 의해 그 틀이 정해진다. 이러한 사태변화는 초기상태와 결과상태를 포함하며, 통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시간의 흐름을 기

호 //////////////를 가지고 기술했던 전철동사 überqueren과는 달리 전 시간구간이 통사적으로 투명한 것으로서 기호 +++++를 가지고 표시하고 있다.4) 동사를 부정사에 의해 명사화 할 경우 비가시적인 시간구간이 이상의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가시화 되기 때문에 이들은 예문 (24b,c)에서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술어 dauern, in Anspruch nehmen 등과 결합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부정사 명사화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앞서 제시한 예문 (24b,c)의 부정사 명사화 Besteigen을 가지고 논의를 계속해보자. 동사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가 시간 축 상에서 비가시적인 것과는 달리, 부정사 명사화인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시간부사 zwei Stunden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앞서 Überqueren에서 본바와 같이 Besteigen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 기술할 수 있다.

(29) a. Das Besteigen des Bergs dauerte zwei Stunden



이 그림에서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초기상태가  $\neg$ bestiegen(x)이고 결과상태가 bestiegen(x)이며, 초기상태에서 결과상태로의 변화과정은 통사적인 기술이 가능한, 즉 한스가 오르게 되는 산의 위치 P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달라짐을 표현하고 있다. 즉 한스가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초기상태의 시점을  $t_1$ 으로 그리고 이때 산의 위치를  $P_1$ 이라고 한다면, 시간적인 경과  $t_1, t_2, \dots, t_i, \dots, t_{n-1}$ 에 따라 한스가 오르게 되는 산의 위치가  $P_1, P_2, \dots, P_i, \dots, P_{n-1}$ 로 바뀌게 되며, 시점  $t_n$ , 위치  $P_n$ 에 이르렀을 때 한스는 산의 정상에 오르게 되고 결과상태인 bestiegen(x)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Besteigen의 사태변화는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를 통해 기

4) Klein(1994, Chap. 9)은 시간부사가 주제시간의 틀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26a)에서 시간부사 vier Stunden은 das Überqueren des Kanals가 지칭하는 사태변화의 시간적인 경계를 나타내고 이 경계가 주제시간의 경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시간부사가 다만 사태변화의 틀을 제공하는 다음의 경우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a. das Überqueren des Kanals geschah Hans gestern von ein bis fünf Uhr nachmittag.

이 문장에서 시간부사 gestern은 과거시간에 위치하는 주제시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von ein bis fünf Uhr가 바로 das Überqueren des Kanals가 지칭하는 사태 변화의 시간으로서 주제시간과 일치하는 것이다.



술된다.

$$\begin{aligned}
 (29) \text{ b. Besteigen}' : & \quad f \text{ Besteigen } (t_1) = \text{bestiegen } (P_1(x)) \\
 & \quad + \quad : \\
 & \quad + f \text{ Besteigen } (t_i) = \text{bestiegen } (P_i(x)) \\
 & \quad + \quad : \\
 & \quad + f \text{ Besteigen } (t_n) = \text{bestiegen } (P_n(x)) \\
 \hline
 & \quad \sum_{j=1}^n f \text{ Besteigen } (t_j)
 \end{aligned}$$

이상의 부정사 명사화인 부정사 명사화인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 Besteigen'은 시점  $t_i$ 를 논항으로 취하여  $x$ (산)의 위치  $P_i$ 가 bestiegen되는 상태를 값으로 하는 함수이다. 초기상태는 시점  $t_1$ 에서 한스가 산을 타기 시작하면서 그후,  $t_i, t_{i-1}$ 까지 한스가 타는 산의 (고도) 위치가 바뀌어지다가 시점  $t_n$ 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산의 정상지점  $P_n$ 에 도달하여 결과상태 bestiegen ( $P_n(x)$ )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결국 부정사 명사화 Besteigen의 의미는 이러한 시간에 따라 한스가 산에 오르게 되는 행위들의 합을 지칭하는 것으로 표기된다.

다음으로 부정사 명사화가 지칭하는 사태변화가 시간 축 상에서 주제시간과 갖게 되는 관계를 검토하여 보자.

(30) a. Das Besteigen des Kanals dauerte Hans vier Stunden/nahm Hans vier Stunden in Anspruch.

b. vier Stunden

{+++++++}...../.....

변화                    주제시간            결과상태            발화시간

{ } : Besteigen의 어휘내용이 지칭하는 상황시간의 경계

[ ] : 주제시간의 경계

+++++++ : 변화과정

/ : 발화시간

이상의 도표에서 부정사 명사화인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의 시간경과는 vier Stunden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태변화는 발화시간을 기준으로 과거에 위치한 주제시간과 일치한다. 즉 ‘한스가 타기 시작해서 산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구간은 지속성 시간부사 vier Stunden에 의해 그 틀이 정해진다. 이러한 사태변화는 초기상태와 결과상태를 포함하며, 통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시간의 흐름을 기호 //를 가지고 기술했던 전철동사 besteigen과는 달리 전 시간구간이 통사적으로 투명한 것으로서 기호 +++++를 가지고 표시하고 있다.

동사를 부정사에 의해 명사화 할 경우 비가시적인 시간구간이 이상의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가시화 되기 때문에 이들은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술어 *dauern*, *in Anspruch nehmen* 등과 결합이 가능하고 따라서 (24b,c)의 문법 성이 설명된다.

## 2.2. -ung-명사화의 시간성

### 2.2.1. 부정사 명사화와 -ung-명사화의 시간성 대조

독일어에서 가장 활성화된 -ung-명사화에 대한 연구는 Essau(1973), Ehrlich (1977, 1991), 신수송(2000, 2001), Shin (2001) 등 최근에 이르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기저동사로부터 -ung-명사화를 유도할 경우에 따르는 기저동사의 동작태에 대한 제약(Essau), 논항구조의 제약(Ehrlich) 및 논항의 속성 변화에 대한 연관성(신수송, Shin)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저동사로부터 -ung-명사화를 유도할 때 기저동사의 시간적인 속성과 관련된 -ung-명사화의 유도상에 따르는 제약을 논의할 것이며 아울러 부정사의 명사화와 어떠한 시간적인 속성의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할 것이다.

먼저 (24)-(26)에서 부정사의 명사화에 이용되었던 기저동사의 시간적인 속성을 근거로 -ung-명사의 유도상의 제약을 보자.

- (24) a.\*Hans überquerte den Kanal vier Stunden.  
 b. Das Überqueren des Kanals dauert vier Stunden.  
 c. Das Überqueren des Kanals nahm Hans vier Stunden in Anspruch.  
 d.\*Das Überqueren des Kanals ist mir nicht gelungen.
- (31) a.\*Hans überquerte den Kanal vier Stunden.  
 b. Die Überquerung des Kanals dauerte vier Stunden.  
 c. Die Überquerung des Kanals /nahm Hans vier Stunden in Anspruch.  
 d. Die Überquerung des Kanals ist mir nicht gelungen.

앞서 부정사 명사화에서 취급한 Überqueren은 (24b,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적인 지속을 갖고 사건을 지칭하며, 시간부사/형용사에 의해 수식되거나 시간적인 지속을 나타내는 술어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24d)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문장의 술어인 *ist mir gelungen*이 주어가 사건의 지속이 아니라 사건의 결과이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어가 사건의 지속을 나타내면 비문법적이 되기 때문이다. 부정사의 명사화와 대조적으로 -ung-명사화의 경우 동일한 문맥에서 (31b,c,d)가 문법적인 것으로 보아 -ung-명사화는 사건의 지속 뿐만 아니라 사건의 결과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5)에서도 나타난다.

- (25) a.\*Man untertunnelte den Kanal das ganze Jahr.  
 b. Das Untertunneln des Kanals dauerte das ganze Jahr.  
 c. Das Untertunneln des Kanals verlangte den Einsatz modernster Bautechnik.  
 d. \*Das Untertunneln des Kanals war ein Verlustgeschäft.
- (32) a.\*Man untertunnelte den Kanal das ganze Jahr.  
 b. Die Untertunnelung des Kanals dauerte das ganze Jahr.  
 c. Die Untertunnelung des Kanals verlangte den Einsatz modernster Bautechnik.  
 d. Die Untertunnelung des Kanals war ein Verlustgeschäft.

(25b,c)가 문법적인 것으로 보아 부정사 명사화인 *Untertunneln*이 시간적인 지속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시간적인 지속을 나타내는 술어 *dauerte das ganze Jahr*, *verlangte den Einsatz modernster Bautechnik*과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5d)의 술어 *war ein Verlustgeschäft*가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태의 결과를 나타내는 주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das Untertunneln des Kanals*와 결합이 비문법적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이제 부정사 명사화와 대조를 이루는, (32)에 주어진 *-ung*-명사화를 보자. (32b,c)가 문법적이기 때문에 *-ung*-명사화는 부정사 명사화처럼 시간적인 지속을 나타내는 술어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 또한 (32d)에서 술어 *war ein Verlustgeschäft*의 주어로 나타나서 문법적이기 때문에 *-ung*-명사화인 *die Untertunnelung des Kanals*는 시간적인 지속이 아니라 사태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끝으로 (26)에서 제시된 *besteigen*의 부정사 명사화와 *-ung*-명사화를 보자.

- (26) a.\*Hans hat den Berg zwei Stunden lang bestiegen.  
 b. Das Besteigen des Bergs dauerte zwei Stunden.  
 c. Das Besteigen des Bergs nahm zwei Stunden in Anspruch.  
 d. \*Das Besteigen des Bergs gab mir große Freude.
- (33) a.\*Hans hat den Berg zwei Stunden lang bestiegen.  
 b. Die Besteigung des Bergs dauerte zwei Stunden.  
 c. Die Besteigung des Bergs nahm zwei Stunden in Anspruch.  
 d. Die Besteigung des Bergs gab mir große Freude.

(26b,c)의 술어인 *dauerte zwei Stunden*, *nahm zwei Stunden in Anspruch* 등은 시간적인 지속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 술어가 부정사 명사화인 *das*

Besteigen des Bergs와 양립하여 (26b,c)가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명사화가 사태의 시간적인 지속을 지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태의 결과를 주어로 요구하는 (26d)의 술어 gab mir große Freude와 양립할 수 없어 이 문장이 비문법적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으로 동일한 기저동사로부터 유도된 (33)에 주어진 -ung-명사화를 보자. (33b,c)가 문법적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지속을 나타내는 술어 dauerte zwei Stunden, nahm zwei Stunden in Anspruch가 die Besteigung des Bergs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ung-조어는 사태의 시간적인 지속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33d)가 문법적이기 때문에 사태의 결과를 주어로 요구하는 술어 gab mir große Freude와 의미적으로 일치하기 위해 -ung-명사화인 die Besteigung des Bergs은 사태의 시간적인 지속이 아니라 사태의 결과를 지칭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ung-명사화는 사태의 시간적인 지속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태의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여 이중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전통문법에서 이러한 현상은 시간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행위 (Nomina actionis)와 행위의 결과(Nomina acti)로 취급된 바 있다. 다음절에서 우리는 기저동사로부터 -ung-명사화를 유도할 경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고찰해 볼 것이다.

### 2.3. -ung-명사화: 사태의 시간적인 지속 혹은 사태의 결과?

-ung-명사는 전통문법에서 행위수행 (Nomina actionis)과 행위결과(Nomina acti)로 대표되는 의미를 갖는다. 전자의 경우 기저동사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변화가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일정한 시간구간을 필요하게 된다. (31)-(33)의 b,c-예문이 문법적인 것으로 보아 이 시간구간이 dauern과 같은 시간지속을 나타내는 동사에 의해 가시화 될 수 있다. 이는 앞서 (24)-(26)의 부정사 명사화인 Überqueren, Untertunneln, Besteigen 등이 지칭하는 사태변화와 동일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앞 절에서 부정사 명사화는 다만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술어와 양립할 수 있을 뿐, 주어가 사태의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술어와 사용될 수 없음을 보았다. 또한 이러한 제약은 -ung-명사화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31)-(33)의 b,c,d-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ung-명사화가 지칭하는 것은 사태변화의 종결이고 (nomina acti), 동일 유형의 사태변화가 일정시간 동안 그 시작과 종결이 되풀이 될 경우 시간 지속을 나타내는 dauern과 같은 술어나 지속성 시간부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차례로 (33)의 b,c-문장들을 기술하여 보자.

(33) b. Die Besteigung des Bergs dauerte zwei Stunden.

c. Die Besteigung des Bergs nahm zwei Stunden in Anspruch.

(33d)의 경우는 *die Besteigung des Bergs*가 시간 축 상에서 점유하는 시간구간은 0-구간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이것이 지칭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고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추상명사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33b) 경우는 어떻게 기술 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가정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은 시간 축 상에서 도표로 그리고 함수관계를 통하여 기술하여 보자.

(34) a. *Die Besteigung des Bergs dauerte zwei Stunden.*

b. -----/////////+++...../////////+++...../////////+++-----

[ -B, B ]<sub>t<sub>1</sub></sub>                      [ -B, B ]<sub>t<sub>i</sub></sub>                      [ -B, B ]<sub>t<sub>n</sub></sub>  
 g<sub>1</sub>                                  g<sub>i</sub>                                  g<sub>n</sub>

-B = - bestiegen(*P<sub>i</sub>(x)*);      B = bestiegen(*P<sub>i</sub>(x)*)

x = Berg

*P<sub>i</sub>*: Berg의 특정 위치

1 < i <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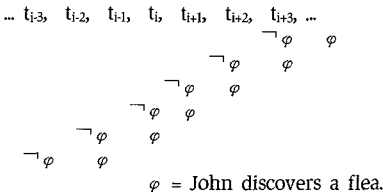
이상의 도표 (34b)에서 운하를 건너는데 필요한 시간을 *t*(=vier Stunden)라고 할 때 이 *t*는 하위 시간구간인 *t<sub>1</sub>...t<sub>n</sub>*으로 구분되고 이 각각의 하위 시간구간에서 산을 타는 행위, 즉 초기상태 - *bestiegen(P<sub>i</sub>(x))* 으로부터 결과상태 *bestiegen(P<sub>i</sub>(x))*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태변화는 각각의 하위시간구간에서 산의 특정위치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오르게되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g* 함수를 통해 기술할 수 있다.

5) 이러한 상황은 Dowty(1979, p. 78)가 다음과 같은 목적어가 정관사 명사구와 0-명사구일 때 문법성의 차이를 기술하기 위해 도입한 방법과 유사하다.

a. \*John discovered a flea on his dog for six hours.

b. John discovered fleas on his dog for six hours.

영어의 *discover*는 순간성 동사로서 사태변화를 위한 시간구간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속성 시간부사 *for six hours*가 사용된 a-문장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그러나 b-문장이 문법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Dowty는 다음과 같은 6시간이라는 시간구간을 하위시간구간으로 분리하고 이 각각의 하위시간에서 *John discovered a flea*라는 사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6시간이라는 전체의 시간구간을 ... t<sub>i-3</sub>, t<sub>i-2</sub>, t<sub>i-1</sub>, t<sub>i</sub>, t<sub>i+1</sub>, t<sub>i+2</sub>, t<sub>i+3</sub>, ...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하위시간구간에서 φ(=John discovered a flea on his dog)이라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각각의 하위시간에는 초기상태를  $\neg\phi$ 라고 한다면 결과상태가 φ가 되는 사태의 지속적인 발생이 주어지는 것이다.

c. Besteigung' =  $g_1$ Besteigung + ... +  $g_i$ Besteigung + ... +  $g_n$ Besteigung

$$\begin{aligned}
 &g_1 \text{ Besteigung: } - \text{ bestiegen}(P_1(x, t_1)) \text{ ---> bestiegen } (P_1(x)) \\
 &+ : \\
 &+ g_i \text{ Besteigung: } - \text{ bestiegen}(P_i(x, t_i)) \text{ ---> bestiegen } (P_i(x)) \\
 &+ : \\
 &+ g_n \text{ Besteigung: } - \text{ bestiegen}(P_n(x, t_n)) \text{ ---> bestiegen } (P_n(x))
 \end{aligned}$$

---


$$\sum_{i=1}^n g_i \text{ Besteigung } (t_i)$$

(34a)의 Besteigung의 의미는  $t_1 \dots t_n$ 에 이르는 각각의 하위시간구간에서 변항 x (산)의 위치  $P_i$ 를 한스가 오르게 되는 사태변화를 나타내는데 이를  $g_i$ 함수 (- bestiegen( $P_i(x, t_i)$ ) ---> bestiegen ( $P_i(x)$ ))의 합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각각의 시간구간에서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상태 즉 /////로 표시된 초기의 상태 - bestiegen( $P_i(x, t_i)$ )와 ++++로 표시된 결과상태 bestiegen ( $P_i(x)$ )사이의 사태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변화는 앞서 우리가 본 기저동사 besteigen'의 의미로 표시한 다음과 같은 f 함수의 합과 같다.

(34) d.  $g_i$  Besteigung :

$$\begin{aligned}
 &f \text{ besteigen } (t_{i1}) = - \text{ bestiegen } (P_i(x)) \\
 &+ : \\
 &+ f \text{ besteigen } (t_{i2}) = - \text{ bestiegen } (P_i(x)) \\
 &+ : \\
 &+ f \text{ besteigen } (t_{in}) = \text{ bestiegen } (P_i(x))
 \end{aligned}$$

---


$$\sum_{j=1} f \text{ besteigen } (t_{ij})$$

(31d)에서 제시한 Besteigung의  $g_i$ 함수는 시간구간  $t_i$ 를 논항으로 취하고 그 시간구간에서 bestiegen ( $P_i(x)$ ), 즉 변항 x의 위치  $P_i$ 가 bestiegen '오르게 되다'의 여부를 결과 값으로 취하는 f 함수의 합이다.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로 표시된 통사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시간구간에서는 모두 초기상태와 동일한 - bestiegen ( $P_i(x)$ )을 값으로 갖는 상태로, +++로 표시된 시간구간에서야 비로서 bestiegen ( $P_i(x)$ ), 즉 x의 위치  $P_i$ 가 bestiegen '오르게 되다'는 값을 갖는 상태로 된다.

이러한 하위 시간구간마다의 변화가 동일하게 반복됨으로 지속성 시간부사 dauern, nehmen vier Stunden in Anspruch등과 같은 시간지속을 나타내는

술어와 결합이 가능한 것이다.

### 3. 결 론

이 논문에서는 파생조어의 시간성에 관한 문제를, 파생동사로서 전철동사인 *besteigen*, *überqueren*, *untertunneln* 등과 이들로부터 유도된 파생명사로서 부정사 명사인 *Besteigen*, *Überqueren*, *Untertunneln* 및 -ung-명사인 *Besteigung*, *Überquerung*, *Untertunnelung* 등을 가지고 검토하여 보았다. 전철동사의 경우 이들이 사태의 변화를 지칭하는, 즉 사건동사일 경우 사태변화의 시간적인 경과가 통사적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이 시간 지속을 나타내는 술어 *dauern*, *einen Monat in Anspruch nehmen*이나 지속성 시간부사 *den ganzen Tag/ein Monat lang* 또는 시간연장 부사 *in einem Monat, in vier Stunden* 등과 결합하면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 유도될 뿐이다. 그러나 이들을 부정사 명사화 한 *Besteigen*, *Überqueren*, *Untertunneln* 등은 시간지속을 나타내는 술어나 지속성 시간부사 혹은 시간연장 부사 등과 결합하여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동사와 명사화의 문법성의 차이는 동사에 의한 사태변화의 과정이 통사적인 접근을 불허하고 단지 결과만을 지칭하는 반면 부정사 명사화를 통해서도 사태변화의 전과정이 통사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정사 명사화가 지칭하는 사태변화를, 시간축의 시점을 정역으로 하고 각각의 시점에서 술어의 대상논항이 술어가 지칭하는 변화를 겪음으로써 얻게되는 결과를 치역으로 하는 함수관계로 나타낼 수 있었다. 다음으로 -ung-명사화의 경우 부정사 명사화와 동일하게 시간지속을 나타내는 술어와 결합하고 지속성 시간부사나 시간연장 부사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태의 결과를 나타내는 술어의 주어가 될 수 있는 통사적인 속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통사적인 속성은 부정사 명사화에 있어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ung-명사의 중의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명사화의 의미적 특성은 기저동사와 같이 사태의 변화과정이 아니라 사태결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가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ung-명사화가 일정한 시간구간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사태결과가 되풀이되는 경우를 지칭할 때, 시간지속을 나타내는 술어와 결합될 수 있음을 함수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 신수송. (1997). 독일어 사건명사(Ereignisnomen)에 관한 의미론적 기술. 어학연구 33(3), 359-388.  
 신수송. (1998). 조어형성에 관한 의미론적 고찰. 어학연구 34(1), 1-31.

- 신수송. (2000). 독일어 동사의 어휘의미 기술을 위한 새로운 방안. *독일문학* 41(4), 290-322.
- 신수송. (2001). 동사와 명사화의 시간 의미론적인 관계 고찰. *독일문학* 42(1), 318-342.
- Agrell, S. (1908). *Aspektänderung und Aktionsartbildung beim polnischen Zeitworte*. Ohlsson: Lund.
- Behagel, O. (1923). *Deutsche Syntax*. (IV. Band) *Wortstellung*. Heidelberg. Duden. (1984).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mannheim u. a.: Dudenverlag. 4. Aufl.
- Eisenberg, P. (1986). *Grundriß der deutschen Grammatik*. Stuttgart: Metzler.
- Helbig, G. (1968). Zum Problem der Genera des Verbs i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DaF* 5, 129-148.
- Dowty, D.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D. Reidel.
- Egg, M. (1994). *Aktionsart und Kompositionalit?*. *Studia Grammatika XXXVII*. Akademie Verlag.
- Ehrich, V.-E. (1977). *Zur Syntax und Semantik von Substantivierung im Deutschen*. Kronberg: Scriptor
- Ehrich, V.-E. (1991). Nominalisierungen. In A. von Stechow und D. Wunderlich, eds., *Semantik* (pp. 441-458). Berlin: Mouton de Gruyter.
- Essau, H. (1973). *Nominalization and Complementation in Modern German*. Amsterdam/London: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 Fleischer, W. (1969). *Wortbildung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Leipzig: VEB Verlag Enzyklopedie.
- Helbig, G. (1989). Das Passiv und kein Ende. *DaF* 26(4), 215-221.
- Helbig, G. and J. Busch. (1986). *Deutsche Grammatik*. Berlin.
- Koo, M.-C. (1997). *Kausativ und Passiv im Deutsche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 1624).
- Klein, W. (1994). *Time in Langua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lein, W. (1998). Wie sich das deutsche Perfekt zusammensetzt? *Zeit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Linguistik* 113, 52-85.
- Kripka, M. (1989). *Nominalreferenz und Zeitkonstitution*. München: Fink.
- Pustejovsky, J. (1991). *The Generative Lexikon*. *Computational Linguistics* 17.
- Shin, S.-S. (2001). On the event structure of -ung-nominals in German, *Linguistics* 39(2), (pp. 297-319).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 Steube, A. and G. Walther. (1972). Zur passivischen Diathese im



- Deutschen. *Linguistische Arbeitsberichte* 5, 17-29.
- Steinitz, R. (1981). *Der Status der Kategorie Aktionsart in der Grammatik*. Berli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 Storch, G. (1978). *Semantische Untersuchungen zu den inchoativen Verben im Deutschen*. Braunschweig: Vieweg.
- Zifonun, G. (1992). Das Passiv im Deutschen: Agenten, Blockaden, und (De-) Gradierungen. In L. Hoffman, eds., *Deutsche Syntax: Ansichten und Aussichten* (pp. 250-275). Berlin and New York: de Gryter.

신수송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전자우편 : ssshin@plaza.snu.ac.kr

접수일자 : 2002. 5. 1

수정본 접수 : 2002. 7. 23

게재결정 : 2002. 8. 24